

#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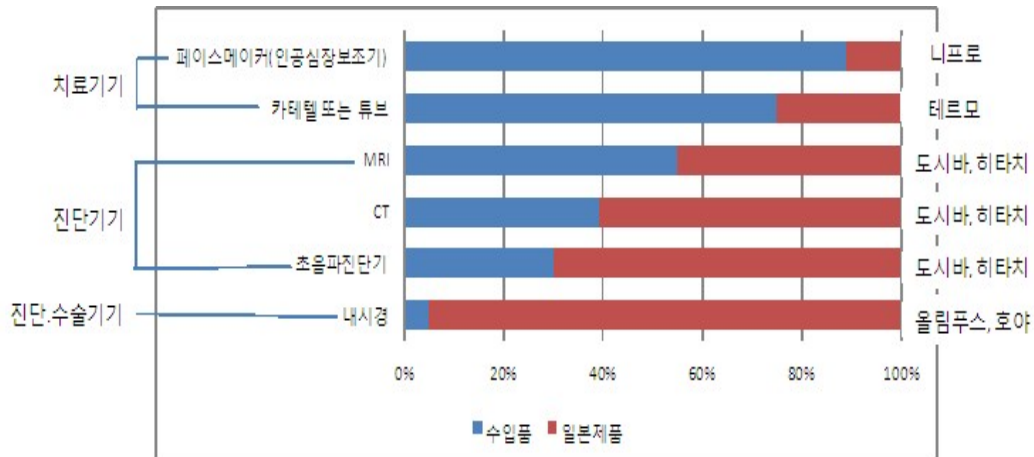
## 1. 최근 업계 동향

### 1)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구도

- 최근 일본 의료기기 시장에서 특히 치료기기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
  -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음
  - 재해로 인해 의료기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유통 및 물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
  -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기기는 일본 국내에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, 치료기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
- 재해 발생과 같은 이유로 급격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치료기기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지만,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국내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
  -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치료기기는 일본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
  -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일본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관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임
  - 의료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엄격한 규격 요건은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하기 때문이지만, 관련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작용됨
  - 그래서 비교적 엄격한 승인요건을 갖추어야하는 치료기기 개발은 부진한 상태이며, 반면 규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진단기기 개발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임

- 결국 일본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임
- 물론 카메라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올림푸스가 만드는 내시경과 도시바가 제조하는 초음파진단기 등은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

<그림1> 일본 주요 제조업체별 의료기 국산화 비율



자료: KOTRA, 해외시장정보에서 재인용

-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들이 앞 다투어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
  - 특히 파나소닉이 적극적인 시장공세에 나서고 있는데, 헬스케어 분야에 총 30억 엔을 투자하여, 고정밀 혈당측정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  -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파나소닉은 앞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임
  - 지난 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국에서 자체브랜드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의료기기 업체로서의 ‘파나소닉’ 브랜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음
  - 2015년 의료기기 매출액을 현재의 3배에 해당하는 4,500억 엔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임
- 파나소닉뿐 아니라 소니와 캐논도 기존 전자사업 분야의 장점을 살려 의료기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
  - 주로 반도체 제조 장치를 만드는 르네사스도 주력분야인 센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부품시장에 진출하였음

- 지난 2007년에 펜탁스를 전격적으로 인수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점유율 확대를 추진했던 호야는 주력분야인 내시경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세에 나서고 있음

<표1> 일본 대기업을의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 현황

기업명	주요 의료기기 제품
캐논	X선 촬영기, 안저(眼底) 카메라
소니	의료용 모니터, 내시경 카메라
후지필름	초음파진단기, 내시경
호야	내시경, 인공 뼈
르네사스	의료용 반도체
아사히	인공 간 등

자료: KOTRA, 해외시장정보에서 재인용

## 2) 이업종에서 활발한 시장진입

-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눈에 띄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의료기기는 성장 분야로 손꼽히고 있음
  - 특히 점차 경기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최근에도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
  - 이러한 분야를 사업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위해 금속가공 및 센서 기술 등, 의료기기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새롭게 의료기기시장에 진출하고 있음

<표2> 이업종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사례

기업명	주요제품	의료기기분야
스즈키프레시온	금속가공품	▷ 일본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금속제 단공식 복강경 수술용 기기 개발
일본피스톤링	자동차용 피스톤링	▷ 치아 치료에 쓰이는 인플란트 시범 제작, 스탠드 등 순차적으로 제품을 늘려갈 계획
山科精器	공작기계, 선박부품, 열교환기	▷ 내시경 관련 제품 제조
요코오	자동차용 안테나	▷ 코일 및 코어와이어 등의 부품제조 기술을 활용한 가이드와이어유닛 제조
우시오전기	산업용 램프	▷ 치과치료기기, 내시경용 광원부품, 적외광선 치료기 제조
東成일렉트릭빔	전자부품	▷ 레이저에 의한 용접기술을 활용한 인플란트 제조
小松스프링공업	자동차, 전자부품용 정밀 스프링	▷ fiber scope용 스프링, catheter관련부품 판매
일본세라믹	방범용 센서	▷ 전자회로 소형화 기술(MEMS)을 응용한 초소형의료기기 개발

자료: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産業調査部(2012), ‘医療機器メーカーの成長戦略’, Mizuho Industry Focus Vol.111에서 작성

-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전망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임
  - 의료기기는 최대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의 생각과 수요 여부에 따라 만들 필요가 있음
  - 따라서 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와의 연계가 중요해짐
  - 자체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성능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제품을 보급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
-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부품업체와 완성품업체 간에 서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임
  - 의료기기업체에 진출할 때 나타나는 경향으로 완성품업체에 대한 부품공급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,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리턴(수익성)은 크게 달라짐
  - 가령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어느 제품에 사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고, 완성품업체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
  - 이렇듯 의료기기 업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리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함

### 3) 규제완화 동향

- 의료기기는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확대에 저해가 되기도 함
  - 일본 의료기기 분야는 엄격한 규제가 시장 진입장벽이 되어 수입의존을 유발하고 내외가격차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
  - 이러한 과잉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, 그 필요성에 대해 일본의 정책당국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신속한 심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(<표3>참조)

〈표3〉 의료기기 분야의 과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검토상황

과제	검토항목	진척상황(2011년 12월 현재)
규제완화 및 기준 명확화	모든 의료기기를 제3자 인증제도에 이행	검토 중
	치험(治驗)중인 경미한 개량범위의 명확화	검토 중
심사의 효율화	2009년도부터 5년간, 개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9개월로 단축(신 의료기기)	-
	표준심사기간을 설정하여, 철저한 진척관리를 추진	표준 심사기간을 설정, 진척상황 리뷰 실시 중
	심사인원 증가: 2008년 12월 35명에서 2013년도까지 104명으로 확대	2012년 3월까지 76명으로 증원 예정

자료: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産業調査部(2012), ‘医療機器メーカーの成長戦略’, Mizuho Industry Focus Vol.111에서 작성

- 지금까지 일본 국내의 엄격한 규제가 의료기기 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으며, 앞으로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업체의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, 수입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큼
  - 특히 규제완화가 실시되면 외국의 최첨단 의료기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따라서 일본 국내 업체는 본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

#### 4) 소니와 올림푸스가 공동으로 만든 의료기기 회사

- 소니의 영상기술과 올림푸스의 의료기기 기술을 접목시켜 고성능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양사가 함께 ‘소니 올림푸스 메디칼 솔루션즈’를 설립하였음
  - 2013년 4월 소니와 올림푸스는 내시경 개발을 주도하게 될 새로운 회사를 공동 출자회사(소니:51%, 올림푸스:49%) 형식으로 출범시켰음
  - 지난 2012년 9월 두 회사는 이미 자본 제휴에 합의한 상태였으며, 이번 공동 출자회사 설립은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
  - 구체적으로는 내시경을 포함한 의료기기 매출을 2020년까지 700억 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
- 관련업계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이 회사가 앞으로 외과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
  - 그 첫 번째 도전이 체내의 3D영상을 고화질 4K 기술로 재현하는 내시경을 개발하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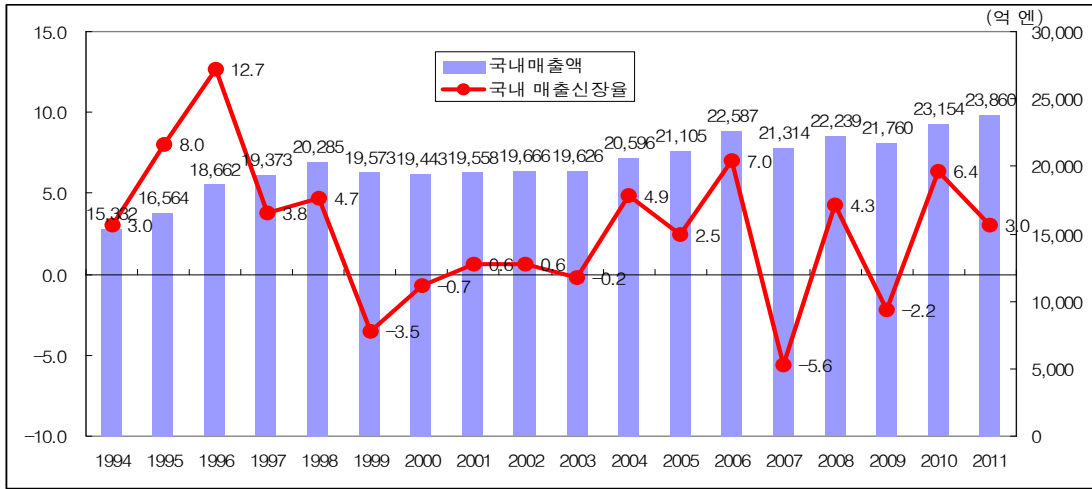
- 이 제품이 개발되면 개복 없이 수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물리적 부담을 적게 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 - 이 회사의 첫 번째 출시제품은 앞으로 2~3년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, 기존 의료기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
- 의료기기 중에서도 내시경은 세계적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미래성장 분야로 꼽히는 분야임
- 현재 올림푸스가 세계시장의 70%를 점유하고 있는 소화기 내시경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3,000억 엔 정도이며 앞으로 매년 9%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는 유망분야 중 하나임
  - 한편 외과용 내시경은 주변기기를 포함한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에 2012년 대비 50% 증가한 3,3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앞으로 소니가 보유한 로봇기술이 활용되면 수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의료기기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또한 소니에 비해 지분이 작은 올림푸스이지만, 그동안 축적해 온 의료기기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임
  - 또한 영업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도 올림푸스 본사의 영업망과 개발센터가 주도할 것으로 보임
- 양사가 각각 의료기기 전문가를 사장(소니)과 부사장(파나소닉)으로 파견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
- 특히 소니는 2020년까지 의료분야에서 2,000억 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번에 설립된 이 회사가 목표달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
  - 이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한 가츠모토(勝本)는 소니 출신으로 코니카 미놀타의 DSLR 카메라 부문을 인수할 때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임
  - 한편 올림푸스는 이번 소니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외과 내시경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
  - 또한 파나소닉은 수술과정을 스튜디오처럼 시스템화하는 구상을 모 기업과 협력하여 구축한다는 방침임

- 결국 이번에 설립된 회사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소니와 올림푸스가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
  - 의료기기 중에서도 내시경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올림푸스는 이번 소니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절약하여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 - 올림푸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소니와의 공동출자회사 설립은 분식회계 사건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진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외부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
  - 다만 의료기기 분야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, 주된 수익 분야였던 내시경을 분리 독립하여 유지하려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
  - 결국 이러한 배경이 내시경 분야로 제한한 소니와의 공동 출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
  
- 소니는 내시경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올림푸스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업을 설립하면서, 실적이 좋지 않은 전자관련 위주의 사업구조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임
  - 그렇지만 의료기기 사업이 소니의 주력분야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
  -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오랜 개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수익을 얻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  - 따라서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 년 간의 실적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

## 2. 시장규모 및 무역동향

- 일본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1년도 기준으로 2조 3,860억 엔임(<그림2>참조)
  - 매년 전년 대비 증감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,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신장율은 약2.1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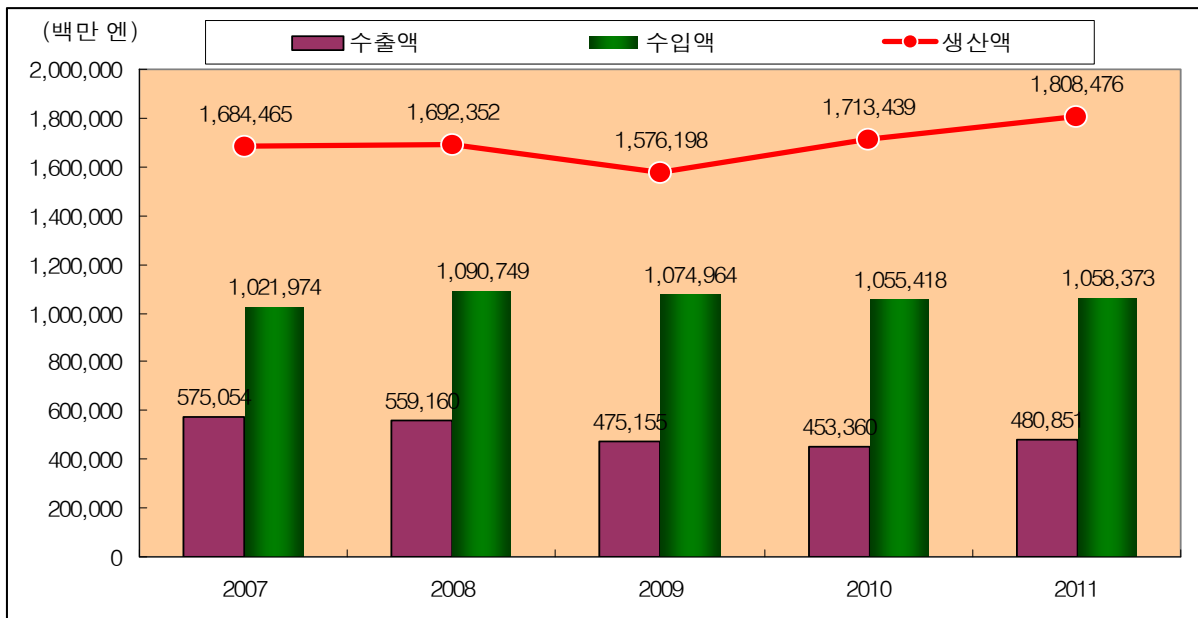
<그림2> 일본 의료기기 시장규모
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- 의료기기 국내 생산액은 2011년도에 1조 8,085억 엔을 기록했으며, 그 중에서 약 30%에 해당하는 4,809억 엔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(<그림3>참조)
- 한편 의료기기 수입액은 2011년도에 1조 584억 엔으로 국내 매출액(2조 3,860억 엔)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.4%임(<그림4>참조)

<그림3>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입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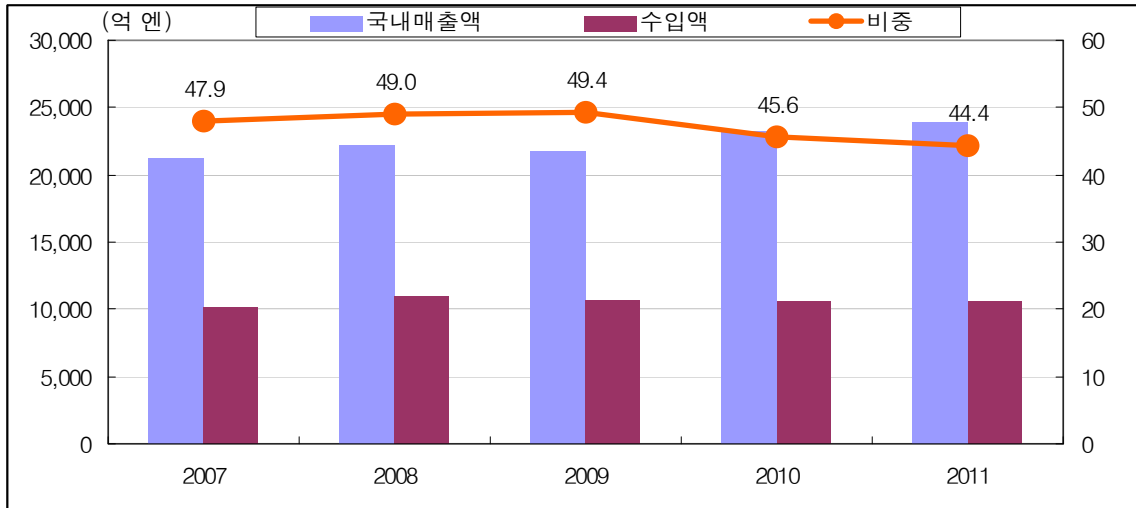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

- 의료기기 무역수지를 살펴보면, 2011년도에 수입이 수출을 약5,775억 엔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, 의료기기 산업 전체로는 수입초과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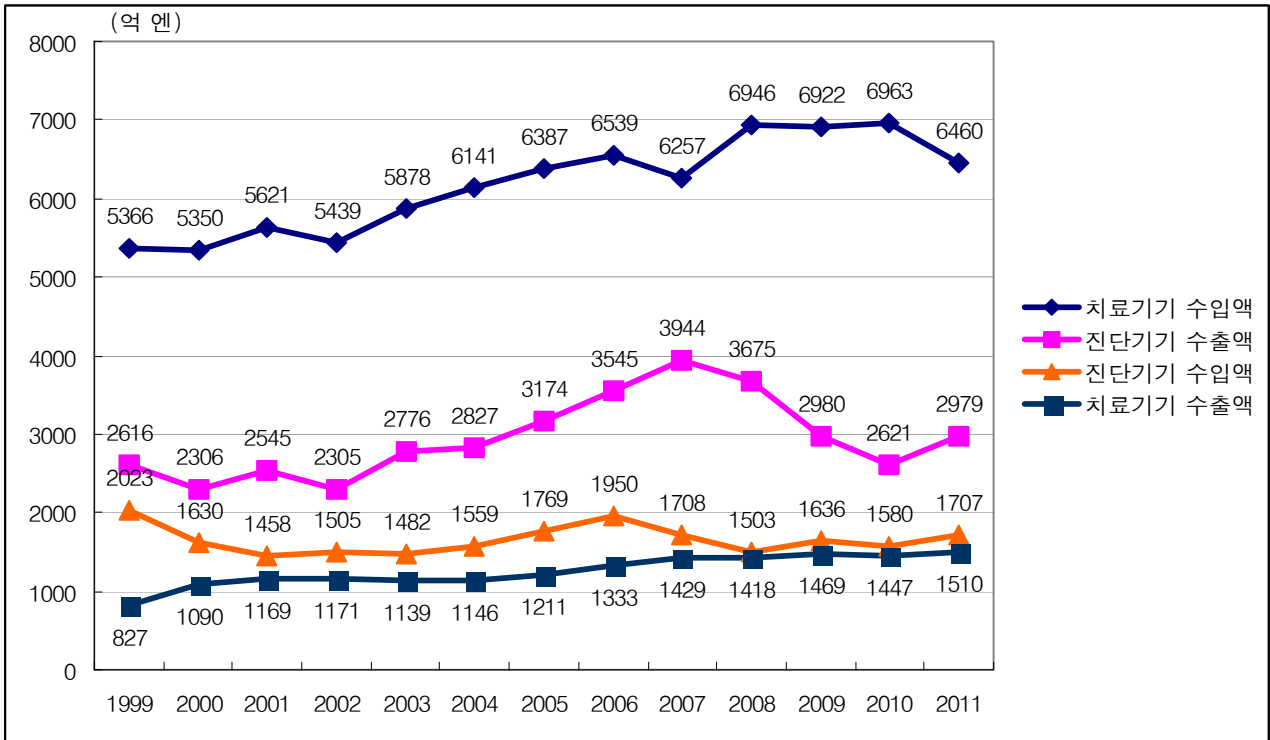
<그림4>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
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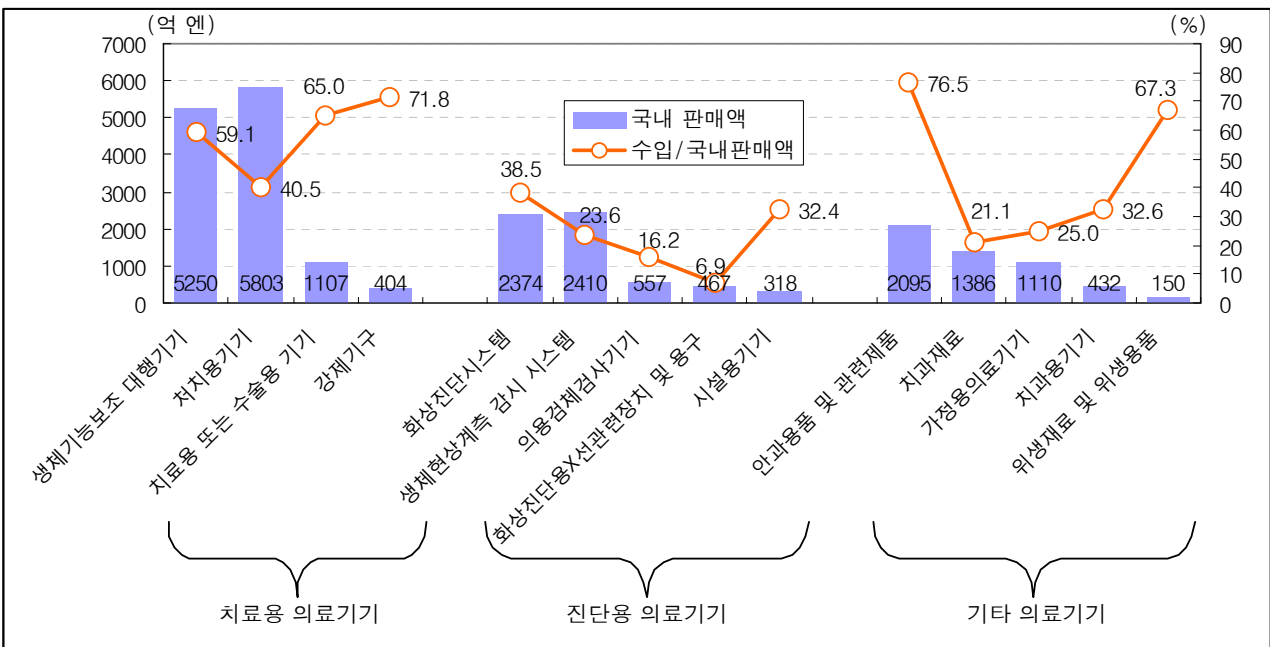
- 전체 의료기기를 치료기기와 진단기기로 구분해서 수출입 동향을 보면, 특히 치료기기 수입초과 현상이 돋보임(<그림5>참조)
  - 2011년에 치료기기 수출액은 1,510억 엔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그 4배가 넘는 6,460억 엔으로 대폭적인 수입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
- 반면 진단기기는 일본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
  - 치료기기와는 반대로 진단기기는 수출(2,979억 엔)이 수입(1,707억 엔)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
- 치료기기의 수입초과 현상과 함께 비교적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안과용품 및 관련 제품임(<그림6>참조)
  - 콘택트렌즈를 비롯한 안과용품 및 관련제품의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11년에 76.5%에 달함
  - 안과용품 및 관련제품의 수출액은 17억 엔, 수입액은 1,603억 엔을 기록하고 있음

<그림5>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수출입 추이
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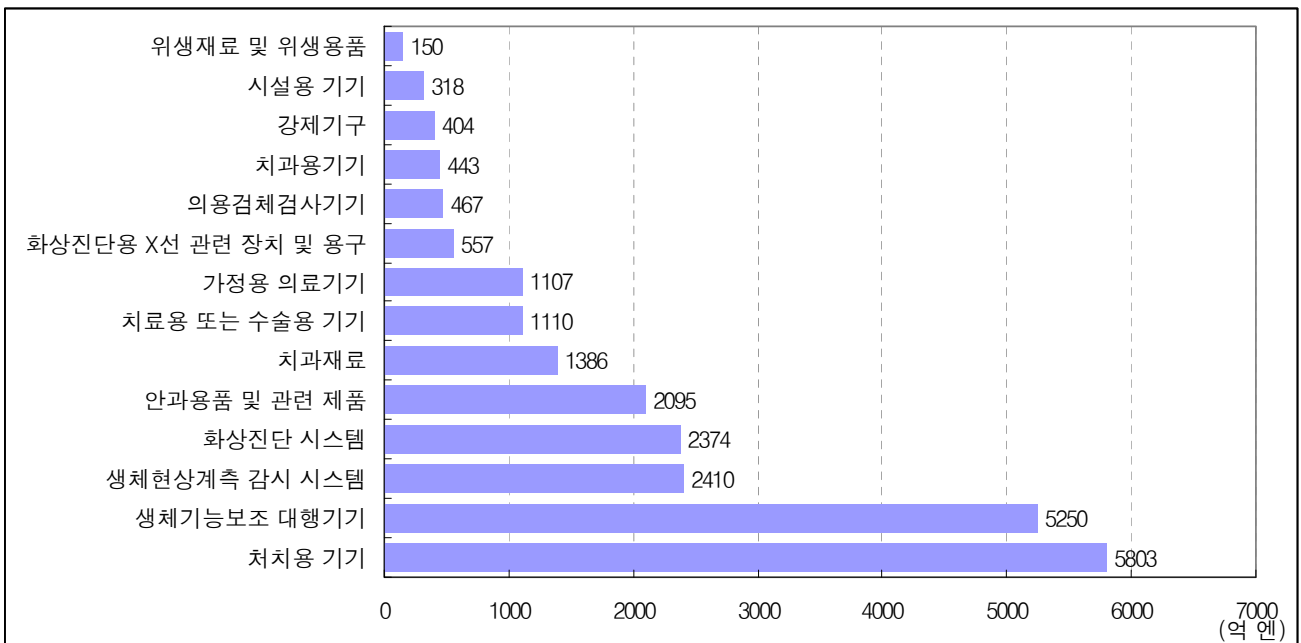
<그림6> 제품분류별 국내 판매액과 수입의존도
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- 수액용기구 등과 같은 처치용기기의 2011년도 시장규모는 5,803억 엔이며, 인공관절, 투석기, 심장페이스메이커 등과 같은 생체기능보조·대행기기의 시장규모는 5,250억 엔임(<그림7>, <그림8>참조)
  - 이들 2개 분야가 일본 의료기기 시장의 약4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5년 전에 비해 20% 정도 증가한 상태임
  - 한편 심전계를 비롯한 생체현상계측·감시시스템의 시장규모는 2,410억 엔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40%가깝게 증가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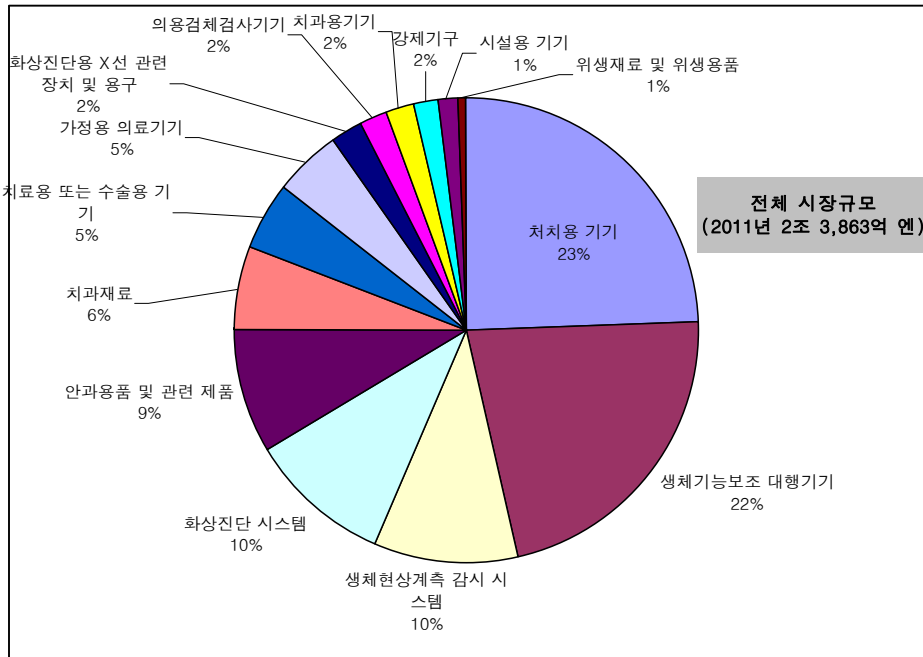
<그림7> 제품분류별 시장 규모(2011년 실적 기준)
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- 일본 의료기기 대외무역이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인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
  - 일본기업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
  - 또한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조하여 현지에서 판매하게 되면 수출로 간주됨
  -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한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소재의 상당 부분이 일본제품일 가능성도 낮지 않을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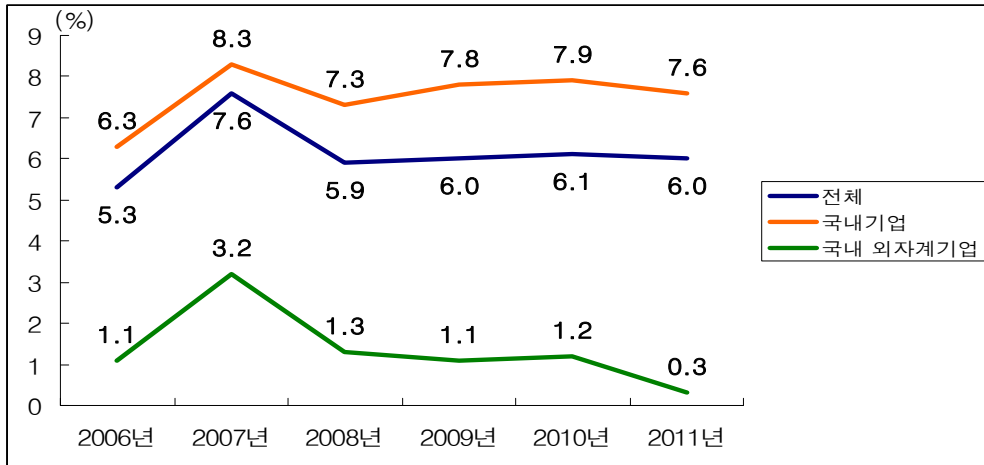
<그림8> 제품분야별 매출액 비중
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- 따라서 일본의 의료기기 수입초과 현상은 일본 국내기업의 사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
  - 즉 수출입 금액으로 일본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
  -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의료기기 산업이 수입초과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, 2013년 6월 14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‘日本再興戰略’의 로드맵에서도 ‘의약품과 의료기기 무역수지 개선’이 2030년 목표로 설정되기도 하였음
- 한편 일본 의료기기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6%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각 회사당 연구개발비는 약4.1억 엔임(<그림9>참조)
  - 일본 국내 외국계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일본 국내기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, 이는 외국계기업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한 이후 최종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<그림9>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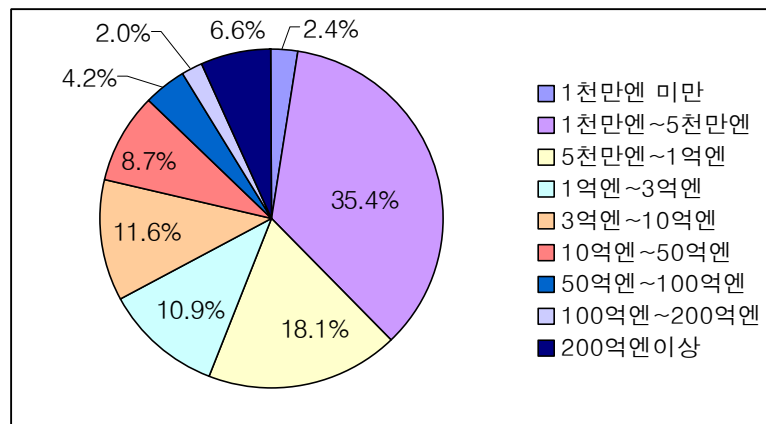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

### 3. 기업 상황

- 일본 국내 의료기기 업체 규모를 보면 자본금 1억 엔 미만 기업이 전체 기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  - 의료기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542개사 중 자본금 5천만 엔 미만 기업이 전체의 약37.8%(205개사)에 달하며,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03개사(55.9%)가 자본금 1억 엔 미만임
  - 또한 1천만 엔~5천만 엔 규모 기업이 전체의 35.4%로 가장 많으며, 200억 엔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의 6.6%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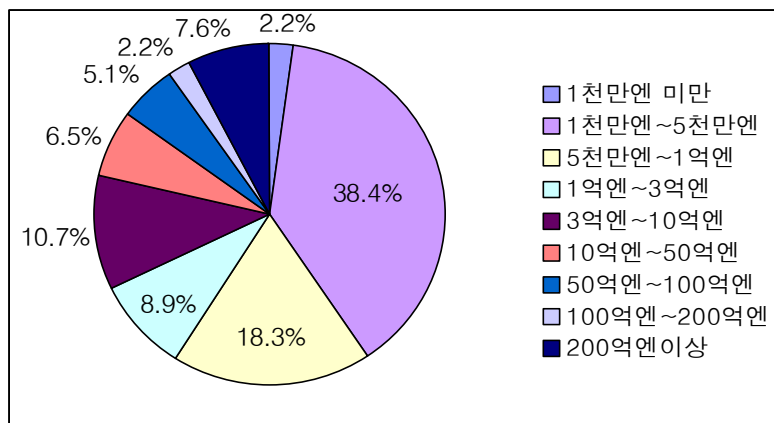
<그림10> 일본 의료기기 업체 자본금 규모(542개사 전체)



자료: 厚生労働省 医療機器産業実態調査(2011年度)에서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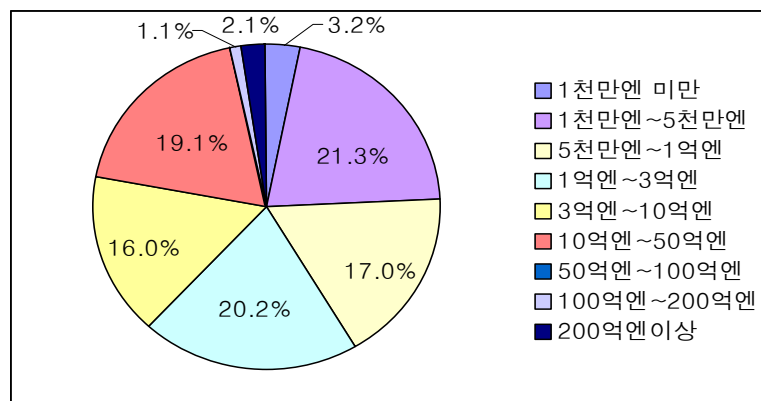
- 자본금별 매출 비중을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의료기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
  - 대기업이 중심인 진단기기에 비해 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크게 나타남
  - 치료기기는 진단기기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진입이 어려워 중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

<그림11> 일본 의료기기 업체 자본금 규모(일본계기업 448개사)



자료: 厚生労働省 医療機器産業実態調査(2011年度)에서 작성

<그림12> 일본 의료기기 업체 자본금 규모(외자계기업 94개사)



자료: 厚生労働省 医療機器産業実態調査(2011年度)에서 작성

- 일본 국내의 일본계기업과 외자계기업 간에도 자본금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음
  - 일본계와 외자계 모두 자본금 3억 엔 미만 기업이 전체의 약60%를 차지하고 있음
  - 그러나 외자계는 10억 엔~50억 엔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 비중이 약20%로 일본계의 6.5%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

## 4. 향후 전망

- 지금까지 일본 의료기기업체는 기술위주의 제품개발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, 앞으로는 다른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
  - 분명 의료기기에는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음
  - 그러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과 의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제품개발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
  - 유럽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, 의료 클러스터와 같이 여러 기관이 한 곳에 집적된 환경에서 의료기관과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
- 또한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,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음
  - 일본 의료기기 분야는 관련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음
  - 이러한 일본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 지배적이지만, 관련된 규제가 적지 않아, 이를 시급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
- 일본 의료기기 시장은 외국계기업을 포함한 대기업(지멘스, 헬스케어, 도시바 메디칼 등)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임
  - 이들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으며, 가격협상력 차원에서도 월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
  -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
  - 따라서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각종 규제와 함께 선점한 기업들의 존재로 인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

- 한편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 첨단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
  
- 특히 전자, 전기 등 의료기기와 연관된 산업의 수준 높은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시장 확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

#### <참고자료>

1. 厚生労働省 医療機器産業実態調査(2011年度)
2. 日経産業新聞社(2013), ‘日経シェア調査’
3. 코트라, 해외시장정보
4.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
5.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産業調査部(2012), ‘医療機器メーカーの成長戦略’, Mizuho Industry Focus Vol.111